# 온라인게임 역기능 "게임만의 문제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IT분야가 얼마나 있을까? 물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반도체와 LCD, 인터넷 인프라 등은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분야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자면 온라인게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성장했고 기술력 역시 세계적 수준이다. 국내 최고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개발자, 엔씨소프트의 송재경 부사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역기능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취재** 신종훈 기자

송재경 부사장은 기획력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고루 갖춘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게임 개발자로 국내 온라인게임 업계의 산 증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게임 '바람의 나라'와 동시접속자 수 30만명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는 온라인게임 '리니지'도 그의 작품이다.

한국과학기술원 시절 PC통신 붐과 함께 찾아온 머드 게임을 접하면서 온라인게임에 매료된 송부사장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렀다.

송재경 부사장은 지난 1997년 엔씨소프트에 합류해 리니지의 시범서비스와 상용서비스를 이끌었고 2000년부터는 엔씨소프트의 미국지사 엔씨오스틴(NC Austin)에서 '리니지 파트Ⅱ'의 개발을 담당하다가 지난 6월 귀국했다. 현재 그는 2D의 리니지를 3D로 업그레이드한 '리니지포에버'의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게임 개발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게이머들이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시장은 어떤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부사장은 국내 게임산업의 환경이 흔히들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좋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우선 국내 게이머들 가운데 일부의 잘못으로 인해 다수의 게이머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 첫 번째이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게임에 대해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때문에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송부사장은 비교적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다.

## 폭력 · 현금거래 등은 사회 전체의 숙제

송부사장은 "대만과 일본에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와 같은 역기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만약 게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곳에서라도 동일한 역기능이 일어나야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게임 내용 자체가 현금거래 등 사행성과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폭력과 사행심을 부추기는 문화가 이미 폭넓게 뿌리박혀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러한 역기능들로 인해 정작 피해를 입는 것은 순수하게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게이머들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리니지는 최고 인기게임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역기능 논란에 가장 많이 휘말려야 했고 이 때문에 엔씨소프트는 '하나되기'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게임을 더욱 재미있게 전개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송부사장은 "기란의 성 에피소드를 정점으로 그 이후의 에피소드들은 특별한 시스템의 변화 없이 영역의 확장과 새로운 몬스터들의 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는 게임의 완성도가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 각계의 비판적인 여론으로 인해 더 이상 게임의 재미를 배가하기 위해 노력할 수 없었다는 점도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순수하게 리니지를 즐기던 게이머들로서는 점차 게임에 식상함을 느끼게 됐고 이는 지속적인 회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그는 현재 제작중인 3D 리니지인 '리니지포에버'에서 선보일 생각이다. 그동안 생각해왔던 재미있는 요소들을 리니지포에버에 모두 담아낼 계획인 것.

송부사장은 "리니지포에버는 리니지에서 나타났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새롭고 참신한 게임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3D로의 변화라는 측면 이외에도 새로운 클래스의 출현과 난이도의 조정 등 새롭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